

아동 건강에 관한 신문 기사 내용분석

김신정* · 이정은** · 이자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은 단지 질병이나 질병위험의 부재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달적이고 행동적인 잠재성에 있어서 역동적인 상태로 인식되며(ANA, 1980), 개인이 그들의 연령과 성 및 성장 발달의 수준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하영수, 이자형, 1994).

아동의 건강간호는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 건강유지, 증진까지 포함되며 아동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거나 또는 어떠한 질병상태에 있든지 최적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김계숙 등, 1999).

아동기는 성인기보다 짧으나 이 기간동안에 많은 성장 발달의 변화를 경험하며(이은주, 1992), 아동기의 건강은 이후의 청년기, 성인기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므로 이는 국가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김신정, 1998). 또한 건강과 관련된 신념, 가치, 태도, 지식과 기술은 아동기에 형성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기 동안에 건강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각, 신념과 가치, 건강에 대한

조절감과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과 관련된 행위 양상이 형성되어 성인기를 향해 계속적으로 성숙된다(Pittman, 1992). 또한 아동기에 습득한 많은 습관은 지속된다(Longlie, 1977).

모든 사람은 건강과 관련된 행위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었건/안 되었건, 그리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이든/아니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몇 행동에 참여한다(Harris, Guten, 1979). 사람들은 그들이 정보를 찾고 획득하는 방법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과 건강행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Lenz, 1984). 특히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건강지식과 신념은 아동의 건강간호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Baldwin, Davis, 1989).

대중매체는 복제, 저장, 유포기술로 시공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일시에 전달하는 대량 전달매체를 의미하므로, 대량의 의사소통 또는 의사전달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계속 자극하므로 현대인들은 삶을 영위하는데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대단히 크며, 이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상현, 채백, 1993).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 서울여자간호대학 시간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신문은 대중매체의 인쇄매체로서 메시지의 일방적인 전달이며, 이 때의 메시지는 한 송신자와 다수의 수용자를 동시에 연결시킴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쳐 다수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김치석, 1996). 또한 103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전형적인 매체로서, 시사성, 공공성, 주기성의 속성을 갖고 항상 인간의 의식, 요구, 행위를 반영한다. 그리고 신문이 갖는 기록성, 높은 재독성(reviewability)은 다른 전파매체에 비해 앞서는 특성이다(허욱, 1988). 1995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신문 구독률은 90%이상으로서(한국언론연구원, 1996), 독자는 총체적이면서 개별적인 정보를 신문에서 구하며, 신문은 독자를 설득하고 제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관련된 태도나 행위를 취하도록 한다(안인식, 1986).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과 발달에 따라 매체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유입됨으로써 신문에서도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손쉽게 접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51.1%가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지식 습득원으로서 인쇄매체를 이용한다고 하였다(김신정, 1998). 즉,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나 대상자에게 신문은 아동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아동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동 건강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이 많이 접하는 정보는 건강증진의 가치와 성공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나(Smith, 1992), 우리나라에서 아동 건강에 대한 정보의 종류나 내용, 이를 통한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중매체 중에서도 매일 발행되고 정확한 지역에 배달되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일간 신문에서 아동 건강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 기사에서 다룬 아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 건강에 관한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여 이것을 아동 건강과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 제공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건강에 관한 내용의 특성을 알아본다.

2. 아동 건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문 기사에서 다룬 아동 건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 분석자료의 표집

본 연구는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아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중매체 중에서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신문은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대중매체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가정 배달제도를 전제로 하여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면'이라는 형태로 응축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가 저장되어 재독성(reviewability)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문의 선정기준은 1) 특수한 계층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일반신문으로, 2) 주간지나 월간지, 지역신문을 제외한 일간지로서, 3)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만 1년동안 우리나라에서 현재 구독률 순위가 높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의 8개 일간지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문의 내용중 발달연령상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아동의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총 표본수는 225개로, 신문에 따라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강조하는 내용이나 구성에 따라서 구별이 되므로 이를 별개의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 건강에 관한 내용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이란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절차이며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연구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Krippendoff, 1980). 즉, 내용분석 방법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시된 의사소통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김경동, 이은숙, 1986).

연구자는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8개 신문으로부터 내용의 범주를 연구목적과 연구주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아동 건강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분석 방법의 기록(recording)단위에 해당하는 주제와 맥락(context)단위에 해당하는 범주로 분류하기 위하여 아동 건강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표시하고 내용의 검토와 의논을 통해 주제를 추출하였다. 주제를 추출할 때 의미있는 주제는 한 항목으로 묶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여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는 추출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공통되는 특성으로 묶어 범주화하였으며, 이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범주화 내용을 근거로 이를 건강유지·증진, 성장·발달, 질병예방, 질병치료의 건강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성장·발달은 광범위하게는 건강유지·증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아동의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각 발달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이러한 성장·발달은 적, 간접적으로 아동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였다. 질병치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국제 질병분류법에 따라 구분하였다. 기사의 내용을 추출할 때는 코딩유목에 따라 건강내용의 주제에 따른 범주화, 범주화에 따른 건강범주, 기사를 다룬 계절, 질병예방과 질병치료 범주에 속하는 내용의 질병분류, 기사가 해당되는 아동의 발달연령에 대하여 코딩하였는데, 불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동의하였다.

연구자의 신뢰도는 내용분석 방법에서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동일 범주로 집계하고 분석자들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Holsti 방법에 의해 3인의 연구자에 의해 계산하였다.

$$\text{신뢰도 계수} = \frac{3M}{N_1 + N_2 + N_3} = \frac{658}{672}$$

($N_1+N_2+N_3$: 연구자가 코딩한 전체 수, M : 연구자간의 일치한 코딩 수)

내용분석에서 Holsti 공식을 이용할 경우, 신뢰도 계

수는 약 90%면 적당하다고 보는데(유재천, 198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평균 98%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화에 관한 것은 간호학 교수 4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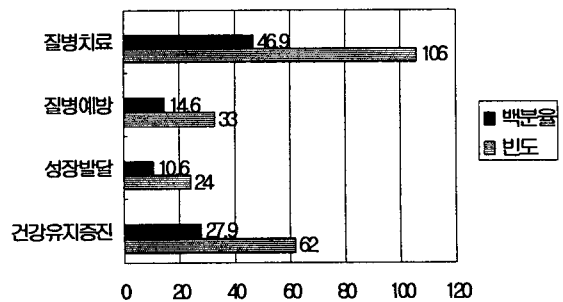
자료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아동건강에 관한 내용의 특성과 범주화 및 건강범주는 내용분석 방법의 수량적 분석 기법으로 제시되는 빈도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아동 건강에 관한 내용의 특성

아동 건강에 관한 내용의 특성으로는 신문기사 내용의 건강범주, 기사를 다룬 계절, 질병예방과 질병치료 범주에 속하는 내용의 질병분류, 기사가 해당되는 아동의 발달연령을 살펴보았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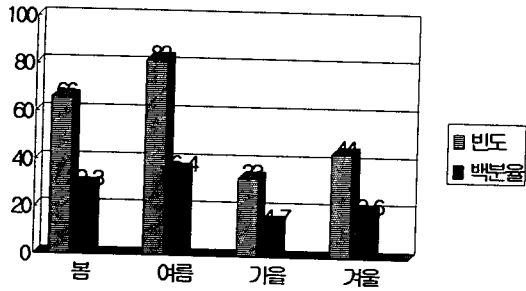
건강범주에 따른 빈도는 질병치료가 105개(46.7%)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유지·증진이 63개(28.0%), 질병예방이 33개(14.7%), 성장·발달이 24개(10.6%)의 순으로 질병치료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아동간호학문에서는 아동의 건강유지·증진 측면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에서는 아동 건강에 있어서 질병치료 위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건강범주에 따른 빈도

기사를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봄이 29.3%, 겨울이 19.6%, 가을이 14.7%의 순이었고 여름에는 감염성질환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는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감염성질환에 이환될 가능

성이 높아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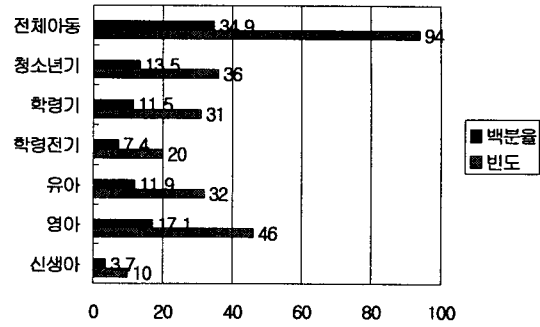


〈그림 2〉 계절별 빈도

WHO의 국제 질병분류법에 의한 빈도를 살펴보면, 감염성질환(29.6%), 정신질환(12.9%), 감각신경계질환(8.6%), 근 골격계질환(7.9%), 호흡기계질환(7.2%), 기타(5.8%), 피부질환(5.0%), 대사성질환(3.6%), 비뇨생식기계질환(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에 있어서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김화자 등, 1993)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아동에 있어서 감염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문기사에서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사가 해당하는 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을 다룬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34.9%), 신생아(3.7%)를 제외한 영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고른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신생아기는 1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므로 다른 발달연령에 비해 기사

내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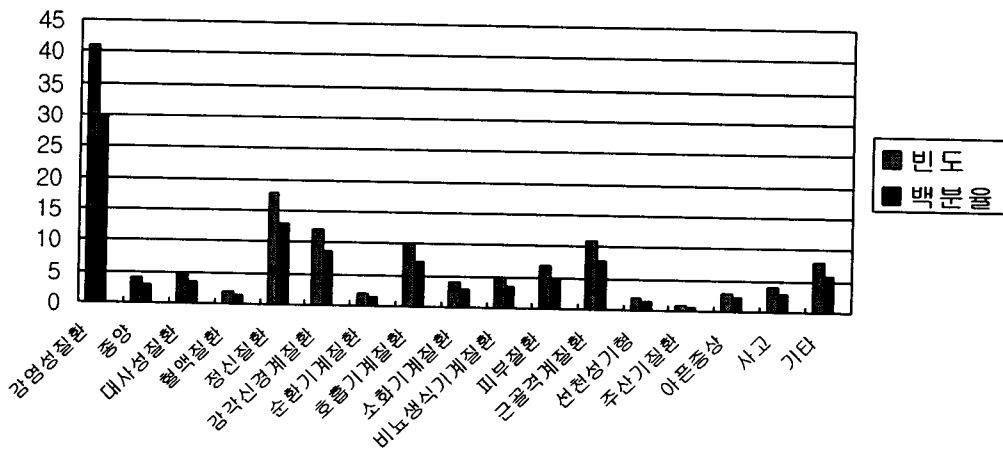


〈그림 4〉 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른 빈도

2. 아동건강과 관련된 내용의 분석

아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의 주제는 201개였으며, 이를 같은 주제끼리 범주화한 결과 범주는 43개로 나타났고 건강범주는 건강유지·증진, 성장·발달, 질병예방, 질병치료의 4개로 범주화 하였다(표 1).

건강유지·증진과 관련된 범주는 마사지, 지능개발, 양육, 비만, 흡연, 사고예방, 스트레스, 피임, 아동학대, 환경요소, 여름철 관리, 치아관리, 건강검진, 학교보건 14개로 건강범주의 2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유지·증진의 건강범주의 순위를 보면 지능개발(11.1%)과 환경요소(11.1%), 비만(9.5%), 건강검진(9.5%), 학교보건(9.5%), 양육(7.9%), 여름철관리(7.9%), 치아관



〈그림 3〉 국제질병 분류법에 의한 빈도

<표 1> 아동 건강 내용의 범주화

| 주 제 | 범주화 | 빈도(백분율) | 건강범주 빈도(백분율) |
|--|--------|---------|---------------------|
| 자극요법 몸 마사지 아기 몸 마사지 아기 몸 마사지로 질병예방 | 마사지 | 4(1.8) | 건강유지·증진 63(28.0) |
| 모유 먹이기 고 영양식 학습과 수맥 아이와 수험생을 위한 CD 수험생, 자세 나쁘면 성적 떨어진다 따뜻한 음식 한 끼가 성적 올린다 아이 녹용, 지능과는 무관 | 지능개발 | 7(3.1) | |
| 자녀 티올 꿈과 양육태도 무관 36개월까지 육아법 육아 청소년 인성, 어머니 애착과 무관 | 양육 | 5(2.2) | |
| 다이어트 비만 청소년 비만 비만 예방 어린이 성인병 무관심이 어린이 성인병 부른다 | 비만 | 6(2.7) | |
| 흡연 예방클리닉 고교생 흡연, 아버지보다 친구 영향 | 흡연 | 2(0.9) | |
| 교통안전 사고예방 | 사고예방 | 2(0.9) | |
| 경제불황 스트레스 경제불황, 아이들도 상처 어린이도 IMF 스트레스 | 스트레스 | 3(1.3) | |
| 응급 피입사업(2) | 피입 | 2(0.9) | |
| SB 증후군 자녀 학대 학대 아동 평생 발병률 높아 | 아동학대 | 3(1.3) | |
| 급식용 접시서 환경호르몬 젓병, 커피 캔 환경호르몬 유아용품 환경호르몬 | 환경 요소 | 7(3.1) | |
| 카페인 금단증상 어린이와 카페인 | | | |
| TV 중독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 | | |
| 여름철 야외활동 수분공급 중요 더위 생체리듬 적색경보 안전한 방충망 사용 요령 어릴수록 더위 더 탄다 아기 여름 나기 | 여름철 관리 | 5(2.2) | |

<표 1> 계속

| 주 제 | 범주화 | 빈도(백분율) | 건강범주 빈도(백분율) |
|--|----------------|---------|---------------------|
| 젓니 건강관리 성장기 아이, 젓니 일찍 뽑지 마세요 유치 건강해야 영구치 건강 색 변한 치아 치아관리 | 치아관리 | 5(2.2) | 건강유지·증진 63(28.0) |
| 시력측정 시력관리, 때 놓치면 평생 고생 방학 이용한 건강검진 방학 건강점검 건강체크 종합검진 | 건강검진 | 6(2.7) | |
| 학교급식 논란 책가방 무게, 체중의 5%가 적당 입학 초기 장애 등교거부증(2) 학교보건 뒷걸음질 | 학교보건 | 6(2.7) | |
| 얼어재우기와 발육 잠자는 자세와 발육 무관 얼어재우면 사망위험 높아 | 수면자세 | 3(1.3) | 성장·발달 24(10.6) |
| 가공식품, 이유식 먹이는 법 이유식, 너무 일러도 늦어도 탈 | 이유식 | 2(0.9) | |
| 공갈젓꼭지 보행기 사용(2) | 기구사용 | 3(1.3) | |
| 키 크는 약(성장호르몬) 한방 성장 촉진제(2) 키, 노력에 따라 클 수 있다 숫다리, 바른 습관으로 키운다 키 쭉쭉 크고 싶은데 잘 놀아야 잘 크다 충분한 영양, 자유로운 환경이 키 크게 한다 | 성장촉진 | 8(3.6) | |
| 영아기 침 흘리기 변중(산통) 2-5세 수음은 자연스런 행동 자위행위 대처법 남자 유방 멍울 일시적 | 발달단계에 따른 현상 | 5(2.2) | |
| 언어발달 언어발달 늦는 아이 지도법 브레즐튼 평가로 건강체크 | 발달평가 | 3(1.3) | |
| 백신주사 예방접종 요령(2) 연령별 필요한 접종 백신접종 안전수칙 뇌염접종 5월까지 보건소 예방접종 무료 영아원 백신실험(2) 백신접종 후 의식불명 | 예방접종 | 16(7.1) | 질병예방 33(14.7) |

〈표 1〉 계속

| 주 제 | 범주화 | 빈도(백분율) | 건강범주 빈도(백분율) |
|---|---------|---------|-------------------|
| DPT 접종 영아 사망(2) DPT 백신 의사들도 불신 MMR 불신 홍역, MMR 부작용 논란 집단 예방접종 중단 검토 | 예방접종 | 16(7.1) | 질병예방 33(14.7) |
| 요충 예방법 포경수술로 요로감염을 낮아져 감기예방, 손씻기부터 | 감염예방 | 3(1.3) | |
| 콩이 유방암 예방 산간 샴터 물 조심 장 바이러스 비상 햄버거에 0-157균 비브리오 패혈증 | 섭생 | 5(2.2) | |
| 입학철 잔병 예방법 레고 딸랑이 회수 수해지역 질병 | 관찰, 주의 | 3(1.3) | |
| 피부병 눈, 피부, 기타 질환 예방법 여름철 피부관리 여름 질환 | 자극요인 감소 | 4(1.8) |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정신건강 상담 | 검사/ 상담 | 2(0.9) | |
| 집단 식중독(3) 도시락 식중독 늦더위 식중독 이상 고온에 식중독 급증 포도막염 중이염 소아 중이염 간접흡연 중이염 발병 위험 중이염 치료법 뇌수막염(2) 에코바이러스 감염 장염 결핵균 집단 감염 조혈모세포 이용 암치료 철분과잉, 암세포에 영양공급 치명적 뇌종양 | 감염성질환 | 16(7.1) | 질병치료 105(46.7) |
| 고서병 왜소증(2) 성 조숙증 | 대사성질환 | 4(1.8) | |
| 땃줄이용 백혈병 치료 빈혈 청소년 빈혈, 위염세균이 주범 | 혈액질환 | 3(1.3) | |

〈표 1〉 계속

| 주 제 | 범주화 | 빈도(백분율) | 건강범주 빈도(백분율) |
|---|-----------|---------|-------------------|
| 약물청소년 약물복용 청소년 5%, 약물중독 반응 중고생 필로폰 양성 반응 | 정신질환 | 16(7.1) | 질병치료 105(46.7) |
| 소아 우울증(2) 자폐증 감염 주의산만 정신질환 식사장애/자기 불만족 과잉 행동장애 놀이로 정서장애 고친다 틱 장애 틱 야단치면 악화 공격적 행동양상 | | | |
| 선천성 백내장 어린이 약시 사시(2) 시력관리와 눈병 안과검진 청소년 근시 OK 렌즈 근시교정 | 감각신경계질환 | 13(5.8) | |
| 만성코막힘 축농증(2) 콧병 축농증, 폐, 쓸개의 한기가 원인 | | | |
| 부정맥 | 순환기계질환 | 2(0.9) | |
| 선천성 심장병 소아천식(4) 기관지 천식 독감(2) 아연정제, 감기치료에 효과없어 기침감기, 약물보다 건강수칙을 | 호흡기계질환 | 9(4.0) | |
| 유아 변비 모유 난치성 설사에 모약 | 소화기계질환 | 2(0.9) | |
| 야뇨증(2) 야뇨증을 약물로 치료 | 비뇨생식기계 질환 | 5(2.2) | |
| 소아 신부전 신장병 환아 | | | |
| 아토피 피부병(2) 무좀 여드름 피부병 치료 | 피부질환 | 5(2.2) | |
| 뼈 연장술, 사지기형 교정 뼈 교정, 연장 교정 | 근 골격계질환 | 11(4.9) | |

〈표 1〉 계속

| 주 제 | 범주화 | 빈도(백분율) | 건강범주 빈도(백분율) |
|--|---------|------------|-------------------|
| 척추측만증(5) 허리 휜 청소년는다 | 근 골격계질환 | 11(4.9) | 질병치료 105(46.7) |
| 근육병 소아 류머티즘 | | | |
| 기형 귀 | 선천성 기형 | 1(0.5) | |
| 미숙아가 갈 곳은 | 주산기질환 | 1(0.5) | |
| 코피시 응급처치 | 아픈 증상 | 5(2.2) | |
| 푸른 똥 잡은 구토 | | | |
| 해열제 사용 신중하게 해열제 맞은 뒤 사망 | | | |
| 청소년 동반자살 청소년 자살 무관심 | 사고 | 2(0.9) | |
| 차이교정 충치 부정교합 부정교합 | 기타 | 7(3.1) | |
| 편도 부분절제술 편도제거 웬만하면 말아야 턱 관절 교정 구강질환자 급증 | | | |
| 합 계 | | 225(100.0) | 100.0 |

리(7.9%), 마사지(6.4%), 스트레스(4.8%), 아동학대(4.8%), 흡연(3.2%), 사고예방(3.2%), 피임(3.2%)의 순이었다.

마사지의 범주에서는 몸 마사지의 방법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마사지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사지로 생길 수 문제(예를들면 피부염)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마사지로 아기의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장점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능개발의 범주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에게 녹용을 복용시키는 것은 지능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녹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다. 또한 영아기의 충분한 영양과 자유로운 환경조성이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며, 생후 1개월간 영양소가 농축된 조제유를 먹은 아기의 평균 지능이 높았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모유를 먹이면 지능발달에 좋으며 수면 위에서 수면을 취할 경우 피로감, 식욕부진, 집중력 부족 등으로 학습능력이 저하된다고 제시하였다. 수험생

의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음악요법을 소개하였으며 수험생의 자세가 나쁘면 어깨나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성적이 떨어지고 따뜻한 아침식사가 아동의 학습능력, 사고력, 집중력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학력중시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부모들이 지능개발 내지는 학습능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양육의 범주에서는 36개월까지의 육아법과 각 연령별로 운동발달, 언어발달, 지적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하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몇 명의 어머니들이 하는 공동육아법을 소개하고 있었고 자녀터울은 3년 전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적당하며 꿈과 아동의 인지발달이 관계가 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는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이한 내용으로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으로 인한 안정감이 아동이 성장하여 생활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기존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의견으로 현재 아동간호

에서 모아관계, 특히 아동 초기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만의 범주에는 청소년 비만과 비만예방, 당뇨, 고혈압 등의 어린이 성인병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무분별한 다이어트 보다는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하였고 피해야 할 음식과 적게 먹는 방법, 운동요법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 비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어린이가 성인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의 영양은 신체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빠르게 성장·발달하는 특성상 필수적이거나 아동 초기 동안의 비만은 성인기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강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Wishon, Kinnick, 1986). 아동에게 있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동맥경화는 아동기에 시작되어 심혈관 질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Mistretta, Stroud, 1990). 아동기의 혈압 상승과 이후의 성인기의 고혈압 발생 간의 가능한 관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지방, 고염분이나 고자당과 같은 아동기의 불량한 영양습관과 비만은 심혈관 질환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의 위험이 있는 아동의 조기발견, 적절한 평가와 적절한 관리가 이러한 상태와 관련된 심각한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Coody, Yetman, Portman, 1995). 또한 Duffy(1988)는 생활양식은 만성 질환의 발달에 50% 이상 기여하며 많은 아동들에게 불건강한 생활양식은 12세 이전에 적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소가 된다고 제시하였고 Igoe(1992)도 생활양식은 심혈관 질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므로 성인병의 예방을 위한 중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증진시키는데 기초를 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양식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성인기까지 지속하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흡연의 범주에서는 고교생의 흡연은 아버지의 흡연 여부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친구의 흡연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흡연예방 클리닉을 지정해 흡연 억제를 위한 한방 침과 생활 지침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안에서의 금연운동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는 발달특성상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친구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고예방의 범주에서는 미국의 통학버스 보호대책과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나라에서의 정책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을 참작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 사망원인의 1위가 사고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사고예방에 대한 기사가 적어,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범주에서는 최근의 경제불황과 관련하여 아동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기 빈곤은 신체적 성장을 방해하며 사회적 분노는 반사회적 성향으로, 열등의식은 우울증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Hyman과 Woog(1982)는 생활사건과 질병 발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한 유기체의 생리적, 심리적 반응은 유기체의 취약성, 민감성을 변화시켜 질병 발생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동의 독립성과 가족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요인으로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가족간의 대화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피임의 범주에서는 미혼모의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상담소에서 임신을 피할 수 있는 '테트라기어'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청소년 응급피임사업 실시에 대해 낙태 반대운동연합, 종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Kitt 등(1995)이 언급한대로 임신방지를 위한 약물의 사용은 계속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신문기사에서는 약물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약물이 오용,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의 범주에서는 영 유아 학대로 나타날 수 있는 SB(Shaken Baby) 증후군의 위험성과 함께 부모의 대부분이 언어폭력과 경미한 신체폭력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자녀학대는 7-10세 때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를 받고 자라면 성인이 된 후 담배, 술, 약물, 섹스 등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 질병에 시달리게 됨을 제시하여 아동학대의 심각한 휴유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파악되고 있지 않고, 문화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체벌이나 구타를 아

등학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아동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지능개발의 범주와 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환경요소의 범주에는 환경호르몬, 카페인, TV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TV를 가까이에서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고 알고 있으나 시력저하로 인해 TV를 가까이서 보게 되므로 이럴 때는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TV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한 건강정보와 TV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콜라, 초콜릿 등을 자주 섭취하는 아동들에게 콜라와 초콜릿을 중단시키면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 카페인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급식용 접시, 젓병, 치아발육기, 장난감 등 유아용품과 플라스틱 식기류, 커피 캔, 포장용 램, 컵라면 용기에서 환경호르몬 검출되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호르몬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음에도, 환경호르몬의 노출로부터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여름철 관리의 범주에서는 어린 아동이 더위를 더 타는 이유와 이의 예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여름철 육아법(음료수, 의복, 방안 온도, 목욕)과 여름철 야외활동시 수분 공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신체리듬을 잃어 감기, 배탈환자가 급증함을 보도하였으며 여름철 안전한 방충제 선택요령과 주의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다.

치아관리의 범주에서는 방학을 이용한 부정교합과 충치의 점검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너무 일찍 유치를 빼면 영구치 배열이 고르지 못하므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며 유치를 빼는 주된 원인이 충치이므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유치관리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등 유치가 나는 시기부터의 치아관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치아의 색이 변할 수 있는 원인과 예방법 및 관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유치는 탈락되므로 유치관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반해 실제로 유치가 영구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구강질환은 충치로(Kronmiller, Nirschl, 1985), 연구에 의해서 증명된 초기 치아관리의 중요성에서는 2세에 충치를 가졌던 아동은 8%였는데 반해, 3세에는 거의 60%로 증가되었다(Shelton, Ferretti, 1982). 구강위생과 같은 좋은 습관 훈련을 위한 긍정적인 재강화는 부모

가 아동의 구강건강에 참여하고 흥미가 있을 때 발달되고(Shelton, Ferretti, 1982) 아동의 식이 양상은 충치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Shelton, Ferretti, 1982), 좋은 구강건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아동의 식이 양상을 사정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충치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의 범주에는 건강검진, 시력측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방주사, 기생충, 잔병, 눈이 침침한 증상 등 방학을 이용해 체크해야 할 건강점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방학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건강체크를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 3-4세때는 첫 시력측정을 해야하고 사시는 2세, 약시는 7세 전에 치료를 해야 하며, 사시와 약시의 증상과 치료, 흔히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사시, 약시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력 관리방법과 눈병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기의 건강을 점검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종합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어린 아동일 경우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건강검진 전문분야를 소개하면서 자세한 정보라기 보다는 관련의를 홍보하여 상업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학교보건의 범주화에서는 등교거부의 원인과 증상, 치료, 빈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갖도록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 놀이치료가 효과가 있으며, 장애가 심할 경우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무거운 책가방은 요통, 목의 통증의 원인이 되므로 책가방의 무게는 체중의 5%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세균성 이질이 발병되자, 이는 대부분 집단 급식과정에서 비롯되므로 복지부는 급식중단을 요청한 내용과 예산부족으로 학교보건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책가방 선택시 모양이나 재질보다는 무게가 가벼운 것을 고르도록 하며 학교급식의 무조건적인 중단보다는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goe와 Giordano(1992)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돕는 공공장소는 학교라고 제안하면서 학교는 이들의 대부분을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학교에서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은 건강교육 교과과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성장·발달에 포함된 범주는 수면자세, 이유식, 기구 사용, 성장촉진, 발달단계에 따른 현상, 발달평가의 6개로 전체의 10.6%를 차지하였으며 성장·발달의 건강범주는 성장촉진(33.4%), 발달단계에 따른 현상(20.8%), 수면자세(12.5%), 기구사용(12.5%), 발달평가(12.5%), 이유식(8.3%)의 순이었다.

수면자세의 범주에서는 엎어서 재우면 팔에 힘을 길러줘 발육을 촉진한다는 내용과 잠자는 자세와 발육은 무관하다는 상반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엎어 재우면 사망위험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 엎어 재우는 것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면자세에 대한 상반된 내용이 보고되어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식의 범주에서는 이유식 시기(과일쥬스는 2개월, 미음, 수프, 야채는 3-4개월)와 가공화된 식품을 이유식으로 먹이는 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능하면 인스턴트 식품을 안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공식품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공화된 식품을 이유식으로 먹이는 방법에 대한 소개는 유용한 정보로 생각된다. Satter(1995)는 부모는 단순한 방식으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서 아동이 익숙한 음식을 섭취하고 새로운 음식 경험을 도전받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유식은 영아의 건강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음식습관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지만 이유식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었다.

기구사용의 범주에서는 아기의 성격, 인격발달, 아기의 만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노리개용 젓꼭지 사용의 이점, 젓꼭지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과 노리개용 젓꼭지는 5세까지는 치아에 부작용이 거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젓꼭지를 사용하면 치아배열에 이상을 초래한다고 하여 많은 어머니들이 사용하면서도 불안을 느끼는데 이에 대해 올바른 정보라고 생각한다. 보행기와 관련하여는 일찍 태운다고 운동신경과 근육발달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보행기는 아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동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찍 사용할 경우 운동발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이 허리를 잘 가누기 시작하는 5개월 이후에 태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성장촉진의 범주에서는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에 대한 적응증, 생활습관, 운동요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방에서는 한방 성장촉진제 등의 약물요법, 뜸요

법, 추나요법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약물요법보다는 생활습관을 통해 키 성장하는 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키 크는 운동과 생활습관 등을 소개하여 키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서양인의 몸매처럼 큰 키에 날씬한 다리로 변하여 서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내용이라 보겠다. 대체로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균형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깊은 수면과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 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뜸요법이나 병원(한의원)을 소개하여 상업적인 내용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약물요법 등을 소개하여 무분별하게 의료 소비자들이 오용할 우려가 높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발달단계에 따른 현상의 범주에서는 영아기 침 흘리는 현상과 변증, 자위행위, 남아의 유방의 멍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영아기 침 흘리는 현상과 비정상적인 가능한 원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변증(산통)은 정상적이며 일시적인 생리현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생후 20개월부터 사춘기 전까지 자위행위는 자연스런 행위이며 이에 대한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아의 유방 멍울은 사춘기 남아의 성적발달로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여성형 유방을 초래하는 요인이나 증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발달평가의 범주에서는 언어발달과 브레즐튼 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언어발달이 늦는 아이의 진단법과 원인, 지도법과 함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늦는 아동의 지도를 위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출생 이후로 아동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극적으로 변화하므로 Hall(1992)은 건강 전문가들 부모들이 그들의 아동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다양한 간격으로 아동의 능력과 요구를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Bantz, Siktberg, 1993). 또한 간호사는 임상에서 DDSI 도구를 간단하게 아동의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상태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예방에 포함된 범주는 예방접종, 감염예방, 섭생, 관찰/주의, 자극요인 감소, 검사/상담으로 14.7%를 차지하였다. 각 범주는 대부분이 예방접종(48.5%)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섭생(15.1%), 자극요인 감소(12.1%), 감염예방(9.1%), 관찰/주의(9.1%), 검사/상담(6.1%)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예방접종의 범주에는 예방접종 전의 유의사항과 접종후 병원이나

가정에서의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DPT 예방접종후 사망사고로 DPT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영·유아의 부모는 물론 소아과 의사들까지 급속히 퍼졌다는 내용과 일본산 MMR 혼합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투여상황과 부작용을 보고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제시하였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시기, 효과, 부작용 소개하고 있었다. 학교 집단 예방접종시 부작용의 촉발원인이 되고 있어 전면 중단을 검토중이라는 내용과 영아원에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실험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는 최근 예방접종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의 확산에 대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신문기사에서는 예방접종 후 30분간 병원에서 지켜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병원에서는 아동을 관찰할 장소나 환경이 적절치 못한 상황이며 접종후 사망한 경우는 접종 직후가 아니라 몇시간 후이므로 현실적으로 가정에서의 관찰에 대한 내용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방접종의 사용을 통해서 아동들은 더 긴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Richardson, 1988)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상적인 예방접종을 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체계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접종후 사망한 경우 빠른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인의 규명이 없는 한 불안한 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영아원 백신실험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일본산 MMR 혼합백신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함께 국가 보건 기구에서의 백신에 대한 법령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염예방의 범주에서는 요충이 있을 때의 증상과 약물요법, 예방법, 포경수술한 아동이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요로감염이 낫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생충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생아 포경수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견이 있으나 단점을 제시하지 않고 감염율이 낫다는 내용만 보도해 일반인들이 무조건 포경수술을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할 수 있다.

섭食的 범주에서는 여름철 산간계곡 샘터 물이 여시니아 균에 오염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과 장바이러스와 비브리오 패혈증의 증세와 예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시판되는 햄버거에서 O-157균 발견되었음과 유아기에 콩을 먹으면 유방암이 예방된다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었다.

관찰/주의의 범주에서는 레고 딸랑이를 가지고 놀다 삼킬 경우 질식될 수 있으므로 긴급 회수했다는 내용과 입학철에 잘 걸릴 수 있는 잔병의 증세와 예방법, 수해지역 어린이가 잘 걸릴 수 있는 질환과 그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었다. 아동에게 장난감을 통한 놀이는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전체적이고 섬세한 운동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동에게는 기본적인 도구(Bantz, siktberg, 1993)이나, 안전성 시험이 필수 조건으로 대두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부모에게 안전하고 아동의 연령에 적절한 장난감을 선택하는 방법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자극요인 감소의 범주에서는 수족구병, 포진성 구형염 등 열성 질환의 증상, 대증요법, 예방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물사마귀, 농가진, 캔디디아증, 수두 등 피부병의 증상과 예방법을 포함한 여름철 피부관리법과 눈, 기타 소아병의 예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모두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과거 50년동안 태양광선에의 노출에 의한 피부암의 빈도가 증가하였는데(Clore, 1995), 자외선에의 노출은 눈과 피부 손상, 그리고 알러지 반응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자극요인 위험에 대해 대상자에게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검사/상담의 범주에서는 28개 지정병원과 보건소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조기발견으로 인한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질병치료는 감염성질환, 중양, 대사성질환, 혈액질환, 정신질환, 감각신경계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선천성 기형, 주산기질환, 아픈 증상, 사고, 기타로 건강범주 중 46.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각 범주를 순서적으로 보면 감염성질환(15.2%), 정신질환(15.2%), 감각신경계질환(12.4%), 근골격계질환(10.5%), 호흡기계질환(8.6%), 기타(6.7%), 비뇨생식기계질환(4.7%), 피부질환(4.7%), 아픈증상(4.7%), 대사성질환(3.8%), 중양(2.9%), 혈액질환(2.9%), 순환계질환(1.9%), 소화기계질환(1.9%), 사고(1.9%), 선천성기형(1.0%), 주산기질환(1.0%)의 순이었다.

감염성질환 범주에서는 식중독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급식, 여관에서 싸준 도시락, 위탁 급식업체의 도시락을 먹고 집단 식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어린이집의 폐혈핵에 걸린 교사로부터 아동 7명이 결핵에 이환되었으며 담배를 피우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 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85%나 높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이염의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 치료법을 소개하였다. 세균성 뇌수막염과 무세균성 뇌수막염을 제시하였으며 포도막염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과 에코바이러스 감염 경로, 증상 그리고 장염시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계절적으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면서 식중독의 발병빈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며 간과하기 쉬운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전염병 검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양의 범주에서는 탯줄의 조혈모세포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을 소개하였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와 혈액내 철분 함유량이 높은 경우 간암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면서, 철분은 생명유지에 필수성분이지만 과잉 섭취시 암세포에 영양공급을 해 치명적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뇌종양시 증상과 검사법, 치료법을 소개하였다.

대사성질환의 범주에서는 성장호르몬의 대상이 되는 왜소증의 진단법과 성장호르몬 요법, 키크는 요령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부족으로 생기는 유전성 대사질환인 고셔병을 제대혈에서 뽑은 조혈모세포 이식술로 성공했다는 내용과 성 조숙증의 원인, 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혈액질환의 범주에서는 혈액암과 유전성 질환시 골수 대신 탯줄에서 조혈모세포를 뽑아내 이식하는 치료법과 청소년 빈혈의 원인으로 위염을 일으키는 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리균을 발견한 내용이었다. 이는 연구결과를 통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신질환의 범주에서는 소아 우울증의 증상, 발견요령, 치료방법 등을 제시하여 조기발견을 강조하였다. 또한 약물복용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중고생 1천명중 2명이 필로폰 양성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약물복용 실태,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강조하였다. 틱의 정의, 원인, 증상, 조절법을 소개하였는데, 치료방법에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준다'는 내용은 비전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격적 행동 양상의 치료, 자폐증의 진단방법과 치료법,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읽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감맹의 진단법과 치료법, 정서적 불안,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시의 치료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가족간의 이해와 공감,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의 기관으로서 서울시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정신질환을 상담하기로 한 내용과 아동 정신진

강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정신질환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지지와 협조가 이루어지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감각신경계질환의 범주에서는 만성 코막힘의 원인, 약물요법, 수술요법과 어린이 축농증, 비염 등 콧병의 증상, 합병증을 소개하면서, 조기 치료로 원인 제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축농증의 원인으로 폐, 쓸개의 풍, 한기라고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 선천성 백내장에 있어서 조기수술의 중요성, 사시의 종류, 증상, 자가진단법, 약시에 도움이 되는 한방요법과 음식물, 지압방법을 소개하고 있었다. 사시의 경우 간단한 자가진단법이나 약시의 자가치료법 등은 유용한 정보가 되나, 이는 아동 질병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근시에 있어서는 OK렌즈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OK렌즈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시술병원을 소개하여 상업적인 광고경향이 짙다.

순환기계질환에서는 심장병의 원인, 예방법, 증세, 진단법, 치료, 최소 개심술과 부정맥을 심도자 절제술로 시행하는 치료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호흡기계질환의 범주에서는 천식의 증상, 원인, 유발요인과 환경을 언급하면서 완치가 어려우므로 관리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천식아동의 건강진단, 교육, 스포츠 활동을 벌이는 천식 아동 캠프를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감기의 실태, 유행성 감기의 원인, 건강수칙과 독감과 감기의 구분법과 독감의 항원, 증상, 예방법,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독감 예방접종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아연이 감기 치료에 좋다는 기존 연구를 반박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오히려 약물보다는 물 자주 마시기, 손씻기, 전파예방 등의 건강수칙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일간지에 따라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상반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화기계질환에서는 유아 변비의 원인과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모유수유가 영아기 만성 설사에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유수유는 아동의 위장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결과이다(Hanson et al., 1985).

비호생식기계질환의 범주에서는 신장염 환자의 빈도와 소아 신장병 및 요로질환 증세와 진단법, 치료법, 신장이식술을 소개하고 있었다. 야뇨증에서는 약물치료

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치료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방에서는 소화기와 호흡기의 허약, 심리적 불안감을 원인으로 본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한방치료를 소개하고 있었다. 집단 소변검사를 통해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아를 발견하여 만성 신부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야뇨증은 정서적 긴장이 원인일 수 있으나 일간지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원인제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약물요법만을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약물요법만이 최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소변검사 같은 내용은 건강문제가 있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으로의 발전을 예방하며 의료비 절감의 효과 측면에서도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피부질환에서는 아토피 피부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이 제시되었으며 가정에서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목욕법, 의복, 환경,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피부병 치료에서는 무좀시 약물요법과 예방수칙,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법, 여름철 잘 걸릴 수 있는 피부병(일광화상, 일광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전염성 농가진)의 치료방법을 소개하였다.

근 골격계질환 범주에서는 척추측만증의 증상, 빈도, 육안 검사방법과 진단, 치료법, 소아 류머티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근육병의 원인과 발병, 증상, 치료법과 재활에 대한 내용과 뼈 연장술로 팔다리 기형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질환중 최근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증가 추세에 있는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조기발견이 중요하고 양호교사가 1차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학교 집단 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한다.

선천성기형의 범주에서는 기형 귀의 수술요법과 수술할 수 있는 적절한 연령을 제시하였다.

주산기질환의 범주에서는 인큐베이터 사용 의료보험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병원마다 인큐베이터 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미숙아 치료에 필수적인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기사용에 대한 적절한 의료수가의 산정과 함께 미숙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아픈증상에서는 코피의 원인, 응급조치를 소개하였으며 영아기의 푸른똥과 잦은 구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을 다루었다. 해열제를 맞은 뒤 사망했다는 보고와 원인을 모른채 사용하는 해열제는 질병 경과를 악화시키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원인에 따라 약물투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 범주에서는 청소년 동반자살 내용을 다루었는데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주위의 무관심, 방치로 보았다.

기타 범주에서는 부정교합의 상태와 정도를 진단하는 병원을 소개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아동 1인당 충치수가 급증하고 있어 12세 아동 충치수 평균 3.1개로 치아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편도의 완전 제거보다는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턱관절 교정법과 턱관절 기능장애시 교정치료해 주면 키 성장이 촉진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개의 일간지에서는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질병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정보제공에 그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간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대상자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관련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홍보하는 상업적인 경향을 간파할 수 없었다.

건강과 관련된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에 의해서는 변화될 수 없으나(McAlister et al., 1982) 건강과 관련된 지식이 많을수록 건강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Coburn, Pope, 1974). 아동 간호사는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위한 매일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아동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에서의 자료에 근거하여 독자들이 합리적으로 옳은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 간호사는 신문이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인식, 행위로 이끌도록 하는 지도적, 교육적 역할을 하도록 신문의 보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아동기의 건강은 일생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현대인에 있어서 대중매체는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신문은 사회의 거울로서 사회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중매체이며 종합적, 보편적이며 공공성이 높은 인쇄매체로 이를 통해 아동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아동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간지에서의 아동 건강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 건강과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 제공시 아동 건강간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자료는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만 1년동안 구독률 순위가 높은 8개 일간지를 표집대상으로 하여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아동의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집된 총 표본수는 225개로 아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의 특성과 내용의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범주에 따른 빈도는 질병치료가 105개(46.7%)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유지·증진이 63개(28.0%), 질병예방이 33개(14.7%), 성장·발달이 24개(10.6%)의 순으로 질병치료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다.
2. 기사를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봄이 29.3%, 겨울이 19.6%, 가을이 14.7%의 순이었고 여름에는 감염성질환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3. WHO의 국제 질병분류법에 의한 빈도를 살펴보면, 감염성질환(29.6%), 정신질환(12.9%), 감각신경계질환(8.6%), 근 골격계질환(7.9%), 호흡기계질환(7.2%), 기타(5.8%), 피부질환(5.0%), 대사성질환(3.6%), 비뇨생식기계질환(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기사가 해당하는 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른 빈도는 전체 아동을 다룬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34.9%), 신생아(3.7%)를 제외한 영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고른 빈도를 나타내었다.
5. 아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의 주제는 201개, 범주는 43개, 건강범주는 4개로 범주화 되었다.
6. 건강유지·증진에 포함된 범주는 마사지, 지능개발, 양육, 비만, 흡연, 사고예방, 스트레스, 피임, 아동학대, 환경요소, 여름철 관리, 치아관리, 건강검진, 학교보건의 14개로 건강범주의 28.0%를 차지하고 있었다.
7. 성장·발달에 포함된 범주는 수면자세, 이유식, 기구사용, 성장촉진, 발달단계에 따른 현상, 발달평가의 6개의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었다.
8. 질병예방에 포함된 범주는 예방접종, 감염예방, 섭생, 관찰/주의, 자극요인 감소, 검사/상담의 6개로 건강범주의 14.7%를 차지하였다.
9. 질병치료에서는 감염성질환, 종양, 대사성질환, 혈액질환, 정신질환, 감각신경계질환, 순환기계질환, 호

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 피부질환, 근 골격계질환, 선천성질환, 주산기질환, 아픈 증상, 사고, 기타의 17개 범주로 건강범주의 46.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만 1년 동안의 8개의 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일간지와 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동 건강에 관한 최근동향이나 관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가 산출되리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가 만 1년동안의 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좀 더 오랜 기간동안 많은 일간지와 매체를 포함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2. 아동의 건강 관련 기사가 아동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상현, 채 백 (1996).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한나래.
- 김경동, 이은숙 (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 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1999). 아동간호학. 신광출판사.
- 김신정 (1998). 영 유아를 위한 어머니의 건강증진 행위. 이화여자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치석 (1996). 멀티미디어 시대의 신문과 방송. 나남출판.
- 김화자, 정용민, 박상규, 박호진, 신미자, 강석철 (1993). 소아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계적 관찰. 소아과, 36(5), 615-624.
- 안인식 (1986). 신문에 나타난 교육관계 기사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천 (1989). 매스미디어 조사 방법론. 도서출판 나남.
- 이은주 (1992).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질병 개념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2), 143-155.
- 하영수, 이자형 (1994). 아동간호학. 수문사.
- 한국언론연구원 (1996). 수용자의 의식조사.
- 허 옥 (1988). 신문광고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고찰.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ldwin, J., & Davis, L. L. (1989). Assessing parents as health educators. Pediatric Nursing, 15(5), 453-457.
- Bantz, D. L., & Siktberg, L. (1993). Teaching families to evaluate age-appropriate toys.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7(3), 111-114.
- Clore, E. R. (1995). Natural and artificial tanning.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9(3), 103-108.
- Coburn, D., & Pope, C. R. (1974). Socioeconomic statu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67-78.
- Cody, D. K., Yetman, R. J., & Portman, R. J. (1995). Hypertension in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9(5), 3-11.
- Duffy, M. E. (1988). Health promotion in the family : Current findings and directives for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3, 109-117.
- Hall, D. B. M. (1992). Annotation : Child health promotion, screening and surveilla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4), 649-657.
- Hanson, L. A., Ahlstedt, S., Andersson, B., Carlsson, B., Fallstorm, S. P., Mellander, L., Porrs, O., Soderstrom, T., & Eden, C. S. (1985). Protective factors in milk and the development of the immune system. Pediatrics, 75(1), 172-176.
- Harding, S. E. (1985). Anorexia nervosa. Pediatric Nursing, 11(4), 275-277.
- Harris, D. M., & Guten, S. (1979). Health-protective behavior :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1), 17-29.
- Hyman, R. B., & Woog, P. (1982).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onset : A review of crucial variabl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5, 155-163.
- Igoe, J. (1992). Health promotion, health protection, and disease prevention in childhood. Pediatric Nursing, 18(3), 291-292.
- Igoe, J. B., & Giordano, B. P. (1992).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 Secrets of success. Pediatric Nursing, 18(1), 61-62.
- Kitt, S., Thomas, J. S., Proehl, J. A., & Kaiser, J. (1995). Emergency Nursing : A physiologic and clinical perspective. Philadelphia: W.B. Saunders Co.
- Krippendorf, K. (1980). Content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 Sage.
- Kronmiller J. E., & Nirschl, R. F. (1985). Preventive dentistry for children. Pediatric Nursing, 11(6), 446-449.
- Langlie, J. K. (1977). Social networks, health belief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3), 244-260.
- Lenz, E. R. (1984). Information seeking : A component of client decisions and health behavior.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9-72.
- Lewis, R. M., & Fischer, R. G. (1987). Sunscreen agents. Pediatric Nursing, 13(3), 200-201.
- McAlister, A., Puska, P., Salonen, J. T., Tuomilehto, J., & Koskela, K. (1982).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2(1), 43-50.
- Mistretta, E. F., & Stroud, S. (1990). Hypercholesterolemia in children : Risk and management. Pediatric Nursing, 16(2), 152-154.
- Pittman, K. P. (1992). Awakening child consumerism in health care. Pediatric Nursing, 18(2), 132-136.
- Richardson, S. F. (1988). Child health promotion practices.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2), 73-78.
- Satter, E. (1995). Feeding dynamics : Helping children to eat well.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9(4), 178-184.
- Shelton, P. G., & Ferretti, G. A. (1982). Maintaining oral health.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9(3), 653-668.
- Smith, M. C. (1992). Nursing's unique focus on health promotion. Nursing Science Quarterly, 5(2), 105-106.
- Wishon, P. M., & Kinnick, V. G. (1986). Helping infants overcome the problem of obesity. MCN, 11, 118-121.

– Abstract –

Key concept : Child health

Content Analysis Related to Child Health in Newspaper Articles

Kim, Shin Jeong · Lee, Jung Eun***

*Lee, Ja H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in child health education or counselling through content analysis related to child health in newspaper articles.

Data were collected 8 daily newspaper by selecting health articles from neonate to adolescent period during 1 yea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in 1998.

The data were analyzed in the framework of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reliability degree was 98% by the method of Holsti.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requency according to health category, disease treatment (46.7%) topped followed by health maintenance · promotion(28.0%), disease prevention(14.7%), growth · development(10.6%).
2. The frequency according to season, summer(36.4%) rank first.
3. The frequency according to WHO international disease classification, infectious disease(29.6%) take most.
4. According to child developmental age, similar frequency showed from infant to adolescent except neonate.
5. 201 themes, 43 category, 4 health categories were confirmed in the content analysis.
6. Health maintenance · promotion occupy 28.0% of health category include 14 categories.
7. Growth · development include 6 category occupying 10.6% of the whole health category.
8. Disease prevention occupy 14.7% of health category and contain 6 categories.
9. Disease treatment take top of health category by the rate of 46.7% and contain 17 categories.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 Lecturer, Seoul Womens' Nursing College

***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